사랑의 쌀 나누기

기독교연합회 쌀 20kg 175포대 기증

포천시 기독교연합회가 최근 포천시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가정에 전해 달라며 20kg들이 쌀 175포대 (시가 7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이 자리에는 포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노수우 목사를 비롯해 차요한 목사, 박상구 목사, 문두식 장로 등이 참석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정성껏 마련된 사랑의 쌀이 어려운 가정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80년 11월 창립돼 현재 2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포천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해에도 800만원 상당의 쌀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등에 전달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 10여명을 선발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돕기 활동을 적극 펼쳐오고 있다.

포천시 기독교연합회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쌀20kg 175포대를 포천시에 기증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서커스도 보고 불우이웃도 도와요!"

포천시 새마을회, '중국기예단 쇼' 개최

포천시 새마을회(회장 강태선)가 최근 반월아트홀 대강당에서 이틀간에 걸쳐 '불우이웃돕기 중국기예단 쇼'를 개최했다.

새마을회 관계자는 모두 2천700여명이 이번 공연을 관람해 1천7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했다며 이를 통해 불우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 70가구에 연탄 800장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시 새마을회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운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매년 이 같은 특색사업을 벌여 불우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새마을회는 관내 불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중국기예단 쇼를 개최해 1천700여만원을 수익금을 모아 70가구에 연탄 800장씩을 전달할 계획이다.

목회단상

감사하는 마음의 기도

김 창 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상술에 앞서가는 백화점에서는 벌써 크리스마스 추리가 등장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려본다.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 힘과 용기를 주셨고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셔서 보람을 갖게 하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화평하게 하사 고통스러운 시간과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소 고통스럽다는 생각은 가끔 들었으나 그래도 주님만큼 배고프지는 않았으며 머리 둘 곳이 없는 정도보다는 훨씬 편한 잠자리가 있었고 가족사이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때도 있긴 하였지만 주님만큼 외롭거나 십자가다운 십자가도 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겪은 만큼 모욕이나 치욕을 당하지도 않았고 차별을 받거나 매를 맞지도 않았으며 주님만큼 불안과 공포 속에 놓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마음이 죄로 차있어서 욕심만큼 더 가지지 못함을 불평하였고 남들과 비교 하는데만 초초하였습니다.

바쁘고 힘겹게 달려가는 일과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친구와 가족과 교우들의 정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고와 질환과 땀과 눈물 속에서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 합니다.

큰 햇빛주심은 잊고 작은 별빛을 불평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다처럼 넓혀주시고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있는 것 찾아 감사하게 하옵소서 숫자의 욕심에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서 하늘처럼 푸르고 시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A-men

문의) 031-532-2489

특별기고 흙건축의 형태-유기체적 형태 (2)

아치, 볼트, 돔 이야기

장 덕 철
(포천 노인전문병원 한방원장)

전회(前回)에서 흙건축의 형태는 유기체적 형태(organic form)이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말씀드린 바있다. 유기체적 형태란 자연에 생존하는 생물의 형태를 닮은, 곡선과 곡면으로 이루어진 형태라고 한마디로 말할수 있다. 오늘은 유기체적인 형태에 가까운 아치(arch)와 볼트(vault - 터널 형태의 구조)와 돔(dome)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

한 트럭의 모래를 땅 위에 부리면 그 모래는 산봉우리 모양이 된다. 그 모양은 모래에게 가장 편안한 모양이 된다. 모래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힘을 쓸 필요가 없다. 산봉우리 모양은 모래더미가 자연에 작용하는 중력에 순응한 모양이기 때문이다. 산봉우리 모양은 모래더미에게는 〈휴식의 모양〉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산봉우리의 모양들도 오랜 시간 자연에 작용하는 중력에 순응하였기 때문에 보기에 편안한 모양이 된 것이다.

〈아치〉는 위에서 언급한 모래더미의 모양이나 뒷동산의 모양과 닮아 있다. 즉 아치는 자연의 중력과 조화된 모양인 것이다. 즉 아치는 자연의 모양이다.

아치를 앞 뒤로 늘어뜨리면 볼트 형태가 된다. 아치를 한 바퀴 돌리면 돔이 된다. 아치는 볼트와 돔의 어머니인 것이다. 아치와 볼트와 돔은 고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형태이다.

고대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를 즐겨 사용하였던 것은 자연의 형태를 일부러 닮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직선과 평면의 구조보다는 곡선과 곡면의 구조가 훨씬 튼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전회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달걀껍질이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라면 쉽게 부서져 버린다는 것을 떠올리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여, 최대한의 공간과, 최대한의 강도를 지닌 형태를 만들어 낸다.

비눗방울의 경우 방울을 만들어내는 고리가 사각형이던 삼각형이던 둥근 비눗방울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둥근 형태 속에는 자연의 보이지 않는 원리가 숨어있다. 자연 속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확고한 원리가 숨어있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따를 때 건축은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강한 구조가 된다.

흙이란 재료는 원래부터 곡선과 궁합이 맞는 재료이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 네모 반듯한 벽돌을 찍어내서 네모 반듯한 형태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연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은 형태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커다란 집, 즉 둥근 우주를 지었다. 아치와 볼트와 돔의 형태에는 고상함과 심오함이 스며 들어있다. 옛부터 이러한 형태의 집들은 신의 거소(居所)와 황제의 궁전과 수도사의 명상실이었다.

사람의 건축은 자연의 모습을 닮은 곡선과 곡면의 형태로 지어져야 한다. 원래 집이란 여성의 기능을 하는 〈그릇〉이다. 지친 사람들을 포근하게 보듬어주는 기능. 사람의 최초의 집은 둥근 엄마의 둥근 뱃속이었다.

이제 다시 엄마의 따뜻하고 편안한 뱃속같은 〈둥©E의 건축〉〈여성의 건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집이니까. 흙집은 둥근 집이 되어야 한다.

다음회에서는 친 자연적인 설계중 에너지와 공간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필자연락처 : 011-628-4214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격려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 포천시 공무원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회원과 포천시청 공무원 등 30여 명이 따뜻한 차를 제공하며 수능 응시생들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2~3명씩 팀을 이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16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넘게 의정부고, 의정부여고, 호원고, 경민고, 송현고 등 의정부지역 10개 고등학교 입구에서 고사장으로 향하는 포천지역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또 '포천시 수험생 합격 기원'이라는 글귀가 담긴 현수막을 걸고 따뜻한 차를 일일이 대접하면서, 편안함 마음을 갖고 평소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뜻밖의 격려를 받은 수험생들은, 시험장 입구에서 고등학교 선후배들의 응원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분들이 격려를 받게 돼 포천지역 학생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포천지역에서는 포천고, 동남고, 포천일고, 일동종고, 관인고, 영북종고 등 6개 학교의 재학생 867명과 졸업생 105명 등 모두 972명이 응시해 의정부지역 10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회원과 포천시청 공무원 등 30여 명이 따뜻한 차를 제공하며 수능 응시생들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보육상담 10

육아데이 캠페인 '육아데이'란 무엇입니까?

육아데이란?

매월 6일은 '육아데이'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은 관계로 아이들과 함께 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의 정시퇴근을 배려하고, 부모는 자녀보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간을 가지며 어린이집(보육시설)은 부모참여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직장-부모-어린이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보육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자는 캠페인입니다.

매월 6일은 모두가 함께 하는 '육아데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지역사회 모두가 보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는 물론 특히 아버지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기 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보육의 직접적인 주체인 부모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모두가 발 벗고 나서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절대 명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매월 6일을 '육아데이'로 정하여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벌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린이집들은 자체적으로 부모참여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부모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직장과 부모 그리고 어린이집이 유기적인 협조아래 '함께 하는 보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는 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직장과 부모, 어린이집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경준
중앙특수어린이집 원장
(031-534-0277)

안전한 전기사용은 에너지절약의 지름길

♠변압기 절연유 실험

전기특급 기술자 다수 확보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안 병 호
대표이사

전기 신규신청 · 각종 대관업무 상담

♠변압기 부하 점검

회사명 :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TEL : 031)541-9111~4 FAX : 031)541-9115